

The Status of Metal Can Industry in Korea

## 국내 제관업계 동향

### Writer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자료 제공

### Contents

- I. 서론
- II. 2018년 금속캔 판매실적
  - 1. 음료캔 판매량
  - 2. 식품 및 기타 캔 판매량
- III. 대형 M&A로 요동치는 제관업계
- IV. 주세법 개편 등으로 성장 기대

### I. 서론

캔은 식품이나 음료를 담는 용기, 또는 통조림의 용기로써 대부분 양철로 만들어진다.

통조림용 양철캔에는 원통형 이중말이 캔과 타원형, 각형 등 타발 캔이 있다. 원통형 이중말이 캔은 캔 몸체, 뚜껑 및 바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양철판을 감은 캔 몸체부의 접합은 납땜을 하고, 캔 몸체와 뚜껑, 또는 바닥과의 접합은 이중감기법으로 해 캔 내용물에 땀납이 닿지 않고 밀봉이 유지되기 때문에 위생 캔(sanitary can)이라고 한다. 이밖에 알루미늄캔, 최근에는 캔 몸체가 투명한 경질 염화비닐판, 뚜껑, 바닥에 양철판을 이용한 투명한 캔도 있다.

캔에는 양철재료 그대로의 캔 외에 내면에 도료를 칠한 것, 외면에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한 것 등이 있다. 내면 도료 캔은 캔 내면을 부식시키는 식품에 이용돼 부식과 변색을 방지하고 본래의 색과 향미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료로는 올레오레진계 도료(oleoresinous varnish), 에나멜, 페놀릭 도료, 비닐 도료, 혼합수지 도료 등이 사용되고 있다.

쌍통용 양철판에는 압연 방식과 도금 방식에 의해 ▲열간 압연 가열 양철판, ▲냉간 압연 가열 양철판, ▲냉간 압연 전기 양철판 등의 종류가 있다.

전기 도금 양철판은 주석량이 적고, 균일하게 철판 양면에 대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산도가 높은 과실 통조림, 이외에도 수산 통조림용 캔, 내면 도료 캔의 바탕 캔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II. 2018년 금속캔 판매 실적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철순)은 국내 50여개 제관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제관업 실태를 조사하여 판매량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및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학계에 제공

하고 있다.

2018년 국내 금속캔 판매량은 84억 2,900만 관으로, 2017년 판매량 83억 6,900만보다 약간 늘어난 실적을 보였다. 전체 수량, 구성비 모두 2017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 1. 음료캔 판매량

국내 금속캔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료캔은 2018년 67억 7,800만 관이 판매되며 2017년 67억 9,300만 관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캔이 62만 4,100만 관이 판매되었고, 맥주캔이 18만 8,000만 관으로 4,7000만 관 가량 판매

[표 1] 2017년도 금속캔 판매실적 비교(내수, 수출포함)

(단위: 백만 개)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음료관	알루미늄	2PCS	맥주관	1,880	1,927	1,811	1,797	1,765
			탄산관	1,882	1,748	1,704	1,529	1,473
			커피관	804	833	864	799	801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1,675	1,651	1,799	1,697	1,664
		계	6,241	6,159	6,178	5,822	5,703	
	스틸	2PCS	맥주관					
			탄산관	5			7	
			커피관	265	306	312	340	387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225	271	186	264	253
			소 계	495	577	498	611	640
		3PCS	탄산관					
			커피관	13	19	25	29	47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29	38	44	49	81
			소 계	42	57	69	78	128
계	537	634	567	689	768 742			
합 계			6,778	6,793	6,762	6,511	6,471	
통조림관	농산물		34	44	43	64	54	
	수산물		457	405	506	507	496	
	축산물		305	291	267	231	204	
	합 계		796	740	816	802	754	
분유관	분유		25	26	33	33	32	
미술관	제약관 및 기타3		2	3	3	3	1	
에어로졸	에어로졸, 부탄		629	615	599	573	619	
일반관	0.5~20ℓ 관		199	192	196	202	213	
총 계			8,429	8,369	8,409	8,124	8,092	

량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스틸 2피스 음료캔의 경우 예년과 달리 탄산캔이 500만 관 판매되었다. 이어서 커피캔은 2억 650만 관, 주스 등 기타음료용 캔은 2억 2,500만 관이 판매돼 4억 9,500만 관의 실적을 올렸다.

스틸 3피스 음료캔은 지난해와 같이 탄산캔 판매량이 없으며, 2017년 5,700만 캔보다 판매량이 줄어든 5억 3,700만 관을 기록했다.

## 2. 식품 및 기타 캔 판매량

통조림은 농산물 3,400만 관, 수산물 4억 5,700만 관, 축산물 3억 500만 관 등으로 총 판매량 7억 5,600만 관을 기록했다. 2017년 7억 4,000만 관보다 판매량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분유 2,500만 관, 제약 및 기타 캔 200만 관, 에어로졸 6억 2,900만 관, 일반 캔 1억 9,900만 관 등이 판매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III. 대형 M&A로 요동치는 제관업계

국내 4대 제관기업 중 두 곳인 한일제관과 삼광글라스가 손을 잡으며 제관업계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롯데알미늄, 테크팩솔루션의 뒤를 잇는 업계 3위 한일제관이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부문인 '삼광캔'의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삼광글라스는 B2B 캔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설법인 '삼광캔'을 설립하고 지분 전량을 금속캔·포장용기 제조업체 한일제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월 21일 밝혔다. 동사는 10월 삼광캔 매각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삼광캔은 10월 1일자로 설립된다. 잠정 협의된 삼광캔의 매각금액은 510억 원이다. 삼광글라스는 주류·식품료 제조업체들을 고객으로 한 B2B산업을 영위해왔다. 지난해 기준 캔사업 부문 매출은 81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24%를 차지한다.

삼광캔을 인수하는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캔·포장용기 제조 전문업체로 이번 인수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전문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사는 탄산음료와 비 탄산음

료 등 음료캔 제조를 비롯해 참치캔 등의 통조림 캔, 페인트 보관용 캔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현재 본사인 양산공장 외에 대전과 음성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한일제관은 롯데알미늄과 테크팩솔루션에 이어 지난해 매출 3위(3,010억 원)를 기록한 바가 있다.

## IV. 주세법 개편 등으로 성장 기대

제관업계는 내년부터 변화하는 주세법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51년 만에 주세법을 변경해 내년부터 맥주의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꾼다. 기존의 종가세는 맥주 가격에 세금을 매겼지만, 종량세는 맥주의 용량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ℓ 기준 세금 부담이 캔 맥주가 415원이 줄어드는 반면, 병 맥주와 페트 맥주는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의 '4캔에 만원'이 가능했던 건 낮은 세금 때문이라며 세계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업계 의견과 국내 주류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맥주 가격에 72%나 붙어 있는

세금 체계를 내년부터 ‘중량세’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캔맥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관업계 역시 캔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캔 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재활용률이 높은 캔으로 포장을 바꾸는 브랜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음료업계를 중심으로 캔 음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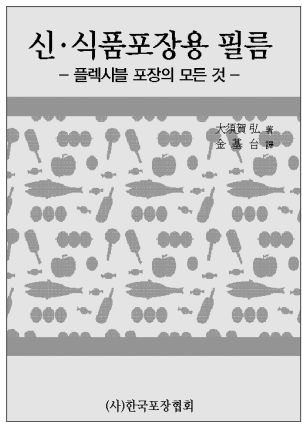
글로벌 식품음료기업 펩시코는 내년 초부터 동사 생수 ‘아쿠아피나(Aquafina)’를 캔 포장으로 바꿔 식료품 가게와 경

기장, 일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시범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쿠아피나는 코카콜라의 다사니와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 브랜드이다. 또한 펩시코는 이미 캔과 플라스틱병 두 종류로 생산하고 있는 탄산수 ‘버블리(Bubly)’를 앞으로 캔 제품으로만 판매하고, 고급 생수 브랜드 ‘라이프워터(LIFEWTR)’는 내년 말까지 미국 내에서 전 제품 재활용 플라스틱병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 8,000톤이 넘는 버진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고 1만 1,000톤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펩시코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 중

9%만이 재사용되는 데 반해 알루미늄의 경우 67%가 재활용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의 75%는 재사용되고 있다”며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는 패키징을 줄이고 재활용하는데 힘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관업계 관계자는 “주세법 변경,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의 확산 등이 제관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거대기업의 M&A 등으로 침체된 제관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서적 안내

신 · 식품포장용 필름

‘신·식품포장용 필름」-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 플라스틱의 성질, 필름제조법, 필름의 성질,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 식품보존성, 플렉시블 포장용 각종 필름, 포장과 환경문제,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20,000원  
· 구입 문의

TEL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